

조경설계 매체로서의 생태

안진희*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1969년¹⁾ 이후 현재까지 조경에서 생태는 각광받는 이슈이자 트렌드였다. “환경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둔 이른바 생태적 조경 계획·설계는 조경의 패러다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조경의 대사회적 역할을 교정했다”(배정한, 2003: 48)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생태적 설계는 환경과 자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경설계에서는 자연, 생태, 환경 시스템 속의 의미 보다는 자연 형태의 외관을 모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임스 코너(James Coner)는 “디자인을 배제하고 생태적 개념만을 추구하는 것도 시대를 퇴행하는 일임이 증명되었다. ... 조경 내에서 생태를 창조적이며 활발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미숙한 것이다”(Coner, 1996: 85)라고 말하며 생태적 설계에서 생태의 부재에 대해 경고했다.

시대에 따라 생태적 조경의 중심 전략 또한 변화한다. 안정적이고 닫혀있다고 인식했던 생태계를 불안정하고 열려있는 생태계로 인식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중심의 전략적 설계가 새로운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다. 생태계의 예측 불가능성은 부지에 반영되어 “특정 시점의 완결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설계보다는 부지의 맥락을 존중하고 시간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동적 설계안”(배정한, 2004: 9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시공까지의 긴 시간과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개념이 흐려지거나 아예 삭제되기도 한다. ‘작동하는’, ‘연속적인’, ‘비중결적인’, ‘변화무쌍한’과 같은 개념들(한국조경학회 편, 2007: 20)은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수목원’이나 ‘도시 숲’으로 대변되는 ‘그림 같은’ 혹은 ‘녹색의’ 개념들로 대체되었다(곽상훈, 2012). 이는 “느린 진행, 모호한 비전, 공원 형성의 논쟁적 프로세스”(Czerniak, 2007: 257)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프로세스 중심적 설계는 사이트 생태 자체에 대한 고려와 생태 과정에 의해 설계 형태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객관적 적합성 측면에서 생태적 설계의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이트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해석하기 어려우며, 설계의 주체가 생태라 할지라도 그 생태적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설계에 함의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태적 조경설계와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생태적 설계가 가독성을 띠는 조경설계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둘째로 생태적 설계의 해석 틀을 마련하고, 이에 충족하는 기존의 설계 작품을 선정하고 분류·해석한다. “빠르게 개발되는 도시적 환경 속에 남은 자연적 구조와 그 선천적 잠재성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Giro, 2008: 106)여야 한다는 크리스토프 지로(Christophe Giro)의 말은 생태적 조경설계가 형태적 명료함을 통해 대상지의 생태적 함의를 쉽게 나타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제 강력한 새로운 경관의 정체성과 함께, 장소의 모순과 복잡성을 통합할 수 있는 오늘날의 언어를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Giro, 2008: 106).

생태와 설계를 통한 미적 실현의 통합, 조경설계에서 생태적 함의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조경설계 전략이자 언어로서 조경설계에서의 ‘생태’는 요소(elements)가 아닌 매체(media)²⁾로서 기능할 때 가능성과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매체란 ‘전달되는 메시지’를 뜻하고, 기존의 경관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잠재력은 조경설계에 의해 가시화되어 메시지로서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II. 매체 관점에서의 생태

1. 매체의 이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매체(媒體, media)라는 말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혹은 그런 수단을 뜻한다.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은 그의 저서에서 매체가 메시지다(Medium is message)라는 말로 매체를 설명하며, 여기서 메시지는 “메시지가 하나의 이미지 속에 만들어 내는 변화”(McLuhan, 2011: 30)를 의미한다. 매체가 메시지라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렇다면 매체에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대개 이것을 메시지라 하지 않는가?’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매체를 주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로 받아들이곤 한다. 대표적으로 ‘방송 매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용자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받으며 여기서 방송은 전달을 위한

‘매체’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내용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에 집중함으로써 매체의 효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얻는 메시지는 매체로 인해 그 영향력을 갖는다. 이처럼 매체의 효과는 매우 강력하며, 통상적으로 ‘내용’이나 ‘정보’라고 부르는 메시지는 매체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작다. 따라서 전달 메시지가 곧 매체이다(McLuhan, 2011: xx, 참조).

2. 조경설계의 매체인 생태

조경설계와 생태는 경관 부분에서 매체-메시지의 관계를 갖는다. 설계가는 조경설계를 통해 생태적 메시지를 생성하며 이용자는 이를 전달받는다. 여기서 조경설계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이고, 전달되는 생태적 메시지는 영향력을 가진다. 이때 이용자는 생태적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며 설계된 조경의 존재는 거의 인식되지 않으나, 이용자가 인지한 생태성은 조경설계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므로 생성된 메시지인 생태는 매체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결론적으로 조경설계라는 매체는 이용자에게 ‘생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태적 메시지는 조경설계로 인해 그 영향력이 존재하므로 생태는 매체가 된다.

기존 조경 연구에서 매체는 경관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용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대 조경은 그 자체로 경관을 일종의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안명준, 2006: 37)는 진단이 그것이다. 조경설계는 경관에의 개입, 이용자는 경관에의 인지라는 각각의 역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주고받는 환경정보는 경관의 잠재성으로부터 나온다. 경관이 가진 고유의 생태적 특성에 집중하여 조경설계를 통해 생태적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생태는 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3. 지역성 범주의 생태

생물학적 형성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경관에 반영되고,

자연형성과정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들이 중첩과 종합은 다시 경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안 맥하그(McHarg, 1969)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대상지가 지닌 생태적 특성을 살리는 토지 이용을 말한 것이었다. 이는 조경설계가 독자성과 개별성을 지니기 위해 생태를 지역 고유의 가치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맥하그의 과학적 접근과 조경설계의 대상지에 대한 창조적 접근은 접점을 가진다.

그러나 조경설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개별성과 차이가 발견되어도 이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형적, 기후적, 문화적 차이의 양식이 발견되고 전개되는 채로 남아있는 복잡하고도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제기”(Giro, 2008: 101)하기도 한다. “장소에 대한 생각이 설계 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과정과 결과물”(조경진, 2011: 183)이 조경설계이고 구현의 결과물이 타 대상지의 설계와 개별성을 띠어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합할 수 있는 실마리는 ‘지역성’, 즉 타 지역과 구분되는 고유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타 지역과 구분되는 대지 고유의 생태적 특징이 설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나 가독성을 가지는 것, 이를 생태가 매체로서 작용한 조경설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III. 생태적 설계의 매체별 분류와 해석

1. 가시화된 생태의 분류

조경의 형태와 전달되는 생태적 메시지 간의 연결 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조경설계 작품 중 지역 고유의 생태성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난 작품을 선정하고 맥하그의 레이어 케이크(layer cake)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표 1 참조). 맥하그는 하나의 경관은 이들 생태적 목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관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을 여러 층으로 만들어진 케이크에 비유해서 설명했다(임승빈, 2009: 44). 이는 경관이 매체로서 고유의 잠재성을 지닌다는 관점과 교점을 갖는

표 1. 생태 매체에 따른 조경 설계 작품 분류

경관의 형성 (레이어 케이크)	지형	지질	토양	수문	식생	야생동물	기후
전달 생태 메시지	지형의 매체	지질 · 토양의 매체		물의 매체	동식물의 매체		계절 · 기상 매체
작품 사진							
작품명, 위치	South-East Coastal Park, Barcelona	양화한강공원, 서울		Aqua Musica, Bad Oeynhausen, Lohne	East Scheldt storm-tide barrier, East Scheldt		Candlestick Point Park, San Francisco

다. 또한 생태적 조경설계의 창조적 표현을 레이어 케이크의 지형·지질·토양·수문·식생·야생동물·기후와 같이 가지적으로 쉽게 연상되는 언어로 분류·해석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생태적 설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태적 설계의 매체별 해석

지역성으로부터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마지막으로 가지화된 생태가 이용자에게 메시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태는 조경설계의 매체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은 해석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지형의 매체: 남동 해안 공원(South-East Coastal Park)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남동해안공원은 자칫 공원 설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지형의 문제를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고유의 가능성으로 재해석하였다. 이 공원 프로젝트의 주요 요구사항은 도시 외곽지역과 공원 전면의 해안가, 그리고 공원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그 고저 차는 11미터였다.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고유의 지역성은 공원 부지 전면에 위치한 모래 언덕이다. 높은 고저 차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직 연결이 아닌 해안 모래언덕의 굴곡에서 차용한 경사진 연결로 고저차를 해결했으며, 이는 유기적 패턴으로 이루어진 굴곡진 콘크리트 타일의 형태를 갖는다. 이용자는 해안의 모래언덕이 연상되는 공원 형태를 통해 지역 고유의 굴곡진 지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설계 개념과 그 결과는,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형태적 실험이라기보다는 대상지의 고유성을 설계적 감수성을 통해 구체화”(최정민, 2012: 4)한 것이다.

2) 지질·토양의 매체: 양화한강공원

대상지는 7미터에 이르는 둔치의 높이차와 높은 하상계수로 인해 수변 활용의 어려움과 시각적 위해를 겪고 있었고, 장마철마다 불어난 강물이 신고 온 진흙을 청소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화한강공원은 지형의 조작을 통해 급격한 둔치의 경사를 완화하고 호안을 다이내믹하게 조형함으로써 스스로를 새로운 기반시설로 변화시켰다. 여기서 대상지의 이용을 방해하고 시각적 위해 요소로 여겨지던 진흙은 오히려 설계의 주요 키워드가 되어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매체로서 작용한다. 완화된 사면에 퇴적되는 진흙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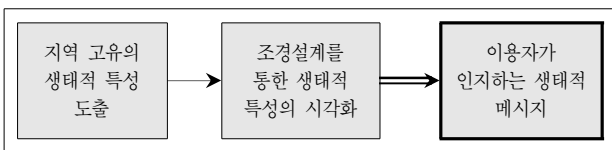


그림 1.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생태를 해석하는 과정

이 지나 사면의 돌 자갈에 의해 식물이 자라는 토양으로 변환되며 이용자는 이러한 과정의 인지하며 수변 토양조건의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3) 물의 매체: 아쿠아 뮤지카(Aqua Musica)

독일 바드 웨인하우젠(Bad Oeynhausen)과 뤼느(Lohne) 지방의 정원박람회에서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요소인 지층 아래로 흐르는 온천수를 부각시켜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설계자들은 지질 작용과 증력의 작용을 받아 지하로 흐르는 온천수를 개방된 공간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깊이 18미터의 거대한 구멍을 파고 온천수를 분사하여 물의 분화구를 만들었다(문지원, 2005: 91). 마을 사이의 동서로 난 줄무늬 모양의 흔적이 물이 흐르는 지하 균열을 상징하는 발한(發汗, perspiring) 돌망태에 의해 표시되면서 지하의 규칙이 지면 위로 암시된다(Shannon, 2007: 173).

4) 동식물의 매체: 이스트 스텔트 방조제(East Scheldt storm-tide barrier)

이스트 스텔트 방조제는 원래 1970년대 조성된 댐이다. 이후 1989년에 정부는 이곳을 자연으로 되돌려 놓고자 했지만 설계가는 지역이 가진 본래의 경관적 가치에 집중했다. 셸 프로젝트(Shell Project)라 불리는 이 작업은 방조제의 인공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흑백의 혼합 꺾매기와 이 두 가지 혼합을 먹이로 삼는 비슷한 흑백의 새들을 연계시킨다(Waldheim, 2008: 51). 또한 댐 위에 조성된 도로는 드라이브를 할 때 흑백의 수평적 띠를 주시함으로써 이곳이 새의 서식지임을 인지하게 한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 선택적 생태계를 조직하고 이를 자동차를 통해 대중적으로 인지시킨다”(Waldheim, 2008: 51).

5) 계절·기상의 매체: 캔들스틱 포인트 공원(Candlestick Point Park)

캔들스틱 포인트 공원은 ‘바람의 문’이라 불리는 벽의 건축을 통해 바람의 강력한 힘을 표현한다. “대상지가 해변인 경우 대부분의 조경가들은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을 설계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다 내음과 파도 소리와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배정환, 2004: 51). 설계가는 대상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해안가 고유의 기상 상태를 형태를 통해 구현하였고, “이용자들은 설계자가 인지자로서 대상지를 자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장소의 독특한 특징을 경험할 수 있다”(Meyer, 2001: 213).

각 매체별 사례는 모두 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설계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다. 앞에 제시한 조경설계의 매체로서 생태를 해석하는 과정에 따라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생태적 설계의 해석

작품	분류	지역 고유의 생태적 특성 도출	조경설계를 통한 생태적 특성의 시각화	이용자가 인지하는 생태적 메시지
남동 해안 공원 (South-East Coastal Park)		지역의 모래 둔덕	용기된 형태의 조각된 지형	지역 고유의 굴곡진 지형
양화한강공원		수변/홍수/진흙	사면/돌 자갈/식물	수변의 토양조건
아쿠아 뮤지카 (Aqua Musica)		지하 온천수	발한 돌망태/ 온천 분수	온천과 이로 인한 의한 지하 균열 · 단층
셸 프로젝트 (Shell Project)		땀/철새	흑백 패턴의 조개껍데기 배열	해안 조류 생태계
캔들스틱 포인트 공원 (Candlestick Point Park)		해안지역	바람이 통과하는 벽 구조물	바닷바람

IV.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도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재료의 사용이나 자연 외형의 모방으로 회귀하곤 하는 생태적 설계의 스펙트럼을 넓혀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무수한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기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생태적 조경설계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경관과 이용자는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 과정에서 설계가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주체인 만큼 조경설계는 경관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조경설계는 삭막한 도심에도 그 내면에는 잠재된 고유의 생태성이 있음을 드러내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 미래의 생태계를 위한 가능성의 팔레트이며, 조경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포용하며 이를 보다 유연하고 민감한 방식으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적응시켜야 한다”(Lister, 2010: 49)는 니나-마리 리스터(Nina-Marie Lister)의 말은 조경에서 생태가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매체는 메시지다”는 맥루언의 제안에서 메시지의 내용에 생태를 담는다면, 조경설계에서 생태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 기술적 제안이 나올 수 있는 창조적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를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설계에서 생태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한 다양한 시각화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생태’는 환경 가치의 잃이고, 생태적 설계는 환경 가치의 미적 추구이다.

주 1. 1969년 출간된 이안 맥하그(Ian McHarg, 1969)의 『Design with Nature』는 조경의 학문과 실천영역에서 환경주의의 도구로서의 조경을 제시한 전환점이 되었다.

주 2. 여기서 ‘media’는 우리말로 ‘매체’, ‘미디어’, ‘대중 매체’ 등의 단어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media’가 가진 ‘전달’로서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인 ‘매체’로 그 쓰임을 통일한다.

참고문헌

- 곽상훈(2012) 세종시, 그림같은 대전원 펼쳐진다. 인터넷 대전일보(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01085)
- 문지원(2005) 조경설계매체로서의 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환(2003) Deconstructing the dichotomy between ecology and art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6(2): 48-56.
- 배정환(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 안명준(2006) 현대 경관의 매체적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빈(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경진(2011) 장소의 기억과 재현. 건축 · 도시 · 조경의 지식 지형. 나무도시. pp. 198-236.
- 최정민(2012) 현대조경에서 지역성의 의미. Landscape Review 14: 2-5.
- 한국조경학회 편(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 작품집. 와일드카드.
- Corner, J.(1996)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in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George F. Thompson and Frederick R. Steiner, eds., John Wiley & Sons. pp. 80-108.
- Czerniak, J.(2007) Legibility and Resilience in Large Park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ed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도서출판조경. pp. 234-275.
- Grot, Christophe(2006) Vision in Motion: Representing Landscape in Time in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Charles Waldheim, ed., 김영민 역(2008).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서출판조경. pp. 100-119.
- Lister, N. M.(2007)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in Large Parks, Julia Czerniak and George Hargreaves, ed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도서출판조경. pp. 36-63.
- McHarg, Ian L.(1969) Design with Nature, ed., John Wiley & Sons, Inc.
- McLuhan, Marshall(2003)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W. Terrence Gordon, ed.,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 북스.
- Meyer, E. K.(2001) The Post - 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i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 Michel Conan.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pp. 187-244.
- Shannon, Kelly(2006) Place as Resistance: Landscape Urbanism in Europe in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Charles Waldheim, ed., 김영민 역(2008).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서출판조경. pp. 160-185.
- Waldheim, Charles(2006) Landscape as Urbanism in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Charles Waldheim, ed., 김영민 역(2008).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서출판조경. pp. 38-59.